

중국 조선족 제1세대 역사학자 박창욱

유 병 호

편집실에서

『정신문화연구』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외 한국학 동향’이라는 난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중국 한국학계의 대표적 학자이자 연변대학에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 박창욱 선생과의 대담을 실는다. 조선족 1세대 학자로 민족 공동체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창욱 선생과의 대담은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담은 박창욱 선생의 제자이며 현재 연변대학 민족연구소 교수로 재직중인 유병호 선생에 의해 2002년 2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연길시 소재 박창욱 선생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약 력

- 1928년 9월 18일: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출생
 1935년 2월~1940년 12월: 연길현 조양천소학교 졸업
 1941년 2월~1944년 12월: 길림성립 재 국민고등학교 응용화학과 졸업
 1952년 9월~1956년 7월: 연변대학 역사학부 졸업
 1957년 8월~1969년 12월: 연변대학 역사학부 강사
 1970년 1월~1978년 8월: 문화대혁명으로 농촌에 추방됨
 1978년 9월~1992년 10월: 연변대학 역사학부·민족연구소 교수

저 서(편저 포함)

1. 『中國朝鮮族歷史研究』, 연변대학출판사, 1995
2. 『中國朝鮮族簡史』, 연변인민출판사, 1986
3. 『조선족혁명열사전』, 1·2·3권, 요녕민족출판사, 1985~1990
4. 『중국조선족역사발자취』, 1·2권, 중앙민족출판사, 1997·1999
5. 『용드레촌』, 연변인민출판사, 1992

* * *

성장 과정

유병호 그 동안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의 학문 성과와 개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제 질문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성장 과정과 생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 조선족 재 세대 역사학자의 성장 과정은 중국 조선족이 겪은 파란곡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욱 우리 집은 1891년 무렵에 함경북도 무산에서 지금의 연길현에 이주했습니다. 본관은 충주 박씨인데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머니는 함지와 물감

을 파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살 때에 북간도로 살길을 찾아 이주했는데 할아버지는 불령고개에서 허기를 이기지 못해 객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삼형제를 데리고 포지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촌들이 살고 있는 자인강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살 때에 우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니 남에게 주라고 하기에 딸만 2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시동생에게 양자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부모의 덕택으로 18세에 결혼했는데 큰 백부와 둘째 백부는 그때까지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백부는 장자라고 해 서당공부를 좀 했는데 일하기를 싫어한 반면에 매일 공자왈 맹자왈을 입에 달고 다녔고 둘째 백부는 원씨네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3년 간 일하다가 땅을 조금 얻어 가지고 따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 후에 부지런히 일해 살림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 큰 백부 집은 낡은 여섯 칸 집에 옥수수 울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한 울타리가 겨울 내내 화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봄이면 집 주위에 말뚝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백부 집은 집도 좋았고 울타리에 가축이 뛰놀았습니다. 둘째 백부는 쌀을 꾸러 온 형수를 볼 때마다 그놈의 공자왈 맹자왈에 쌀이 나오느냐고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형을 탓하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일은 해방이 되어 토지개혁을 할 때 큰 백부의 아들은 빈고농 단장이 되었고 둘째 백부는 부농으로 확정되어 청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촌간에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큰 백부의 아들은 지부 서기를, 둘째 백부의 아들은 촌장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4형제를 두었는데 큰 형은 광복 전에 회령탄광으로 갔다가 해방이 되자 그대로 북한에 남았습니다. 둘째형은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해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에 갔다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형은 광복 직전에 일본군에 끌려가 지금까지 생사불명입니다. 큰형과 둘째형은 1994년에 평양에 갔을 때 40여 년 만에 겨우 만났습니다. 우리 형제는 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의 유년 시절과 학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1935년에 고향

의 조양천소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1937년에 국민우급학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말로 공부를 했지만 1939년부터는 완전히 일본어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말을 한 마디 할 때마다 나무로 만든 패를 하나씩 주었다가 제일 많이 받은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조선말로 큰 소리를 친 뒤 교실로 돌아오는 했는데, 이것이 교감 선생에게 발견되면 곧바로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반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았는데 여학생들의 나이는 모두 나보다 5~6세 많았기 때문에 나를 동생처럼 배려해 주었습니다. 1940년에 소학교를 졸업했는데, 선생님은 용정의 중학교는 10대 1의 비율로 경쟁이 높다고 하면서 입시를 먼저 보는 길림의 성립제6국민고등학교의 시험을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담이 컸던 나는 자진해 길림으로 입학원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밤새 기차를 타고 길림으로 갔는데 무서워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변 일대는 거의 조선 사람의 천하로, 중국인에 대해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에서 내려 서투른 중국말로 뻬따제(北大街)라고 소리쳐 마차를 타고 조선 여관을 찾아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학교에서 11명이 시험을 쳤는데 나를 포함해 6명이 합격했습니다.

길림제6국민고등학교의 전신은 프랑스 선교사가 설립한 사립문광학교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만주국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축출하면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학교는 길림의 유일한 관립 조선인 고등학교였습니다. 응용화학과와 전기과의 두 전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원은 대개 일본인이었고 하얼빈공대 등을 졸업한 일부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인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미술 교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도 6명이 있었지만 모두 길림의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본인 학생은 5명이 있었는데 개척단 가정출신으로 생활이 비교적 빈곤했습니다. 나는 이 학교의 제2기생으로 응용화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유병호 저로서는 겪어 보지 못한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암암리에 민족 의식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내가 소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이미 ‘만주국’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일 선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소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리와 역사 시간에 틈틈이 우리에게 조선의 지리와 역사를 가르쳐주었지만 이것도 북간도에서 출생한 이민 2세인 우리에게 고국에 대해 막연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조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소학교 3학년 때 항일연군이 안도현에서 신설대를 섬멸했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 반 친구의 형도 전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야단이었지만 우리는 독립군의 활약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사람들은 김일성의 부대를 김일성독립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중학교에 입학하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때까지도 길림의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정서는 농후했는데, 길림 출신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욕했습니다. 입학한 첫 해 가을에 길림시의 중학생들은 길림과 화전 사이의 도로를 닦는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틀을 걸어서 화전까지 갔습니다. 사실상의 근로 봉사였지요. 학교에 돌아온 후 상급생들은 학교 당국이 우민 정책을 실시한다고 비난하면서 4일간 동맹 휴학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형사들이 학교에 상주했는데 학생들은 밤이면 기숙사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하고 학교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동맹 휴학은 결국 오전목이라는 학생의 밀고 때문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학생에게는 나중에 오줌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동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학년 때에 학생들의 식비를 떼어먹은 일본인 사감을 축출하기 위해 일으킨 동맹 휴학 등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학 교과서로 위장한 『천황기관설』이란 반일 책자가 나돌았는데, 하루는 내가 이 책을 보다가 중국인 선생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무엇 하느냐 하면서도 학교 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나는 희미하게 민족과 고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일본이 실시하는 교육이 조선인을 노

예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병호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광복이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박창욱 나는 1944년 12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길림에 있는 만주전기화학주식회사에 초급기술자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만주에서는 면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섬유를 생산하고 또 비행기 연료와 인조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한 군수 공장으로, 지금의 길림화학공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공장을 하루빨리 가동하기 위해 심지어 잠수함으로 독일에서 수압기를 운반해 오기도 했습니다. 졸업 전에 실습으로 4개월 동안 공장에서 노동한 적이 있던 나는 카바이트를 생산하는 공장에 배치되었는데 그 때 월급으로 35원을 받았습니다. 만주전기화학공장은 1945년 8월에 정식으로 시운전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 진주한 소련군은 공장 때문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일본인 기술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해 공장 설비를 모두 해체시킨 뒤 기차로 소련에 가져갔습니다. 나를 포함해 공장에 있던 6명의 조선인도 공장에 간헐 기계를 운반하는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중국인 기술자가 우리에게 길림 시내에 조선인거류민회가 결성되었으니, 일본인들 속에서 나와 그들을 찾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인거류민회를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러시아어로 ‘조선인거류민회’라고 쓴 완장을 주면서 공장에 주둔한 소련군 장교에게 조선인의 신분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 돌아와 완장을 보이면서 조선인이라고 하자 소련군 장교는 증명서를 써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기차가 피난민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3일이나 걸려서야 겨우 고향인 조양천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병호 광복이 되자 많은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박창욱 그 때 비록 큰형이 회령에 있었지만 큰 형수도 조양천에 있고 조선에는 별다른 친인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 진주한 조선의용대와 항일연군이 토지 개혁을 시작했는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부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한 조선인의 토지를 사유지로 인정하고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국

민당 점령지의 많은 조선인이 귀국한 것은 국민당이 동척의 대부금을 빌려 구입한 조선인 농민의 토지를 일본의 재산으로 보고 전부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보존한 우리 가정은 모두 그대로 중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에서 할 일이 없이 지내던 나는 1946년에 연변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기에 응시하려 갔지만 정부에서 국민당과 전투가 박두했다고 하면서 모집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때 청년들은 군대에 가는 것이 유일한 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길경비대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걸려 곧 제대하고 말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군대에 가서 길림군구 직속 공병대대에 배속되었는데 나중에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있던 제10종대(제47군)의 직속 공병대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공병은 포병과 함께 중공군의 유일한 기술 병종에 속했기 때문에, 일정한 문화 지식이 있어야만 공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동북(만주: 편집삭)을 해방시키는 요심전투와 북경을 해방시키는 북평전투에 참가했고 그 후에는 양자강을 넘어 호남성으로 진격했다가 사천성 중경까지 해방시켰습니다.

유병호 그때 군인들은 월급은 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박창욱 우리는 그때 월급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군이 오면 우리의 토지를 몰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공급제를 실시했는데 담배를 비롯한 일체 생활 용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물건을 좀더 많이 주었습니다. 중경을 해방한 다음 부대에서는 우리에게 은전을 3 잎씩 주었습니다. 나와 다른 조선족 친구는 기념으로 만년필을 사려고 거리에 갔는데 상점주인이 우리가 조선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반색하면서 자기도 조선인이라고 하면서 만년필을 하나씩 공짜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혹 임시정부에 관여했던 독립 운동가가 아닌가 합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국공내전이 끝난 뒤 북한으로 파견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때의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북경을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 부대의 조선인들 가운데는 ‘중국 혁명의 임

무를 완수했으니 조선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대를 이탈해 조선으로 도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조선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아직은 중국의 절반을 국민당이 점령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해야 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중경을 해방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상급 부대에서 긴급이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화물 기차에 태우고 동북으로 갔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조선에 왔다는 것을 알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처음 밟아 보는 고국 땅이지만 어쩐지 낯선 감은 없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본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 입고 곧 송림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상적으로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해방 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만 출신들은 '김일로(신설대 대장)를 잡자'고, 남만 출신들은 '정일권을 잡자'고 구호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고 생각했지 조금도 동족 상잔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점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민족 화합의 시각에서 역사를 봐서는 안되지요.

한국사 연구에의 입문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연변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게 된 동기와 연변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연변대학은 스스로의 민족 대학을 세우겠다는 조선족의 숙원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된,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최초의 대학입니다. 비록 사회주의 공유 체제에 의해 국립 대학으로 되었지만 설립 초기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교사는 일본 관동군이 사용하던 병영의 일부를 개조해 사용했고 도서를 비롯한 교육 기반도 극히 열악했습니다. 제1기생의 대부분을 직접 교단에 세워 강의를 하도록 해야 했고 학생들 가운데는 소학교를 졸업하

고 입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수와 학생들은 조선족의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나는 원래 중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제대한 뒤 대학 시험을 볼 때에는 벌써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미 대학에 입학한 친구가 역사학을 전공할 것을 극구 권했습니다. 그 결과 1954년 연변대학 역사학부에 제2기생으로 입학했지만 처음부터 한국사에 흥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 연변대학에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학자들과 민족 운동을 하던 분들이 교수로 계셨는데, 그 분들은 한국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들 들면 『만선일보』 기자 출신인 오봉엽 교수는 발해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돈화 육정산 정효공주묘도 그의 지도로 발굴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상해파 출신으로 중국공산당 연길현 조직부장을 지낸 최문호 교수와 ML파 출신의 지희겸 교수는 한국 고대사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변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정치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면서 학문상의 百花齊放·百家爭鳴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활발한 학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역사학부의 교수들은 기자조선 문제·고조선의 영역·고구려사·발해사 등 한국 역사의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에서 조직하는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민족 해방 운동사에 제일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지희겸 교수님 등을 찾아 질문을 했는데, 그 분들은 자신이 겪은 실제의 경험에 입각해 문헌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 메모한 것들을 문화대혁명 기간에 잃어버렸으니 실로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보다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할 때 전교에서 세 명의 최우등생을 선발해 금메달을 주었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연변자치주

주장 주덕해로부터 직접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발탁되어 학교에서 중국 역사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 학교에 남아 지회겸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던 역사 古蹟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적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중국 현대사 연구실로 옮기고 지회겸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항일 민족 독립 운동사를 연구했습니다. 1957년 상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에 가서 유명한 오택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연변대학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지회겸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박창욱 지회겸 교수님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부친이신 지장회 선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장회 선생은 의병장으로 3·1운동 후에 북간도에서 의군부 통신부장을 맡았습니다. 경신년 토벌이 시작될 때 지장회 선생은 노령에 무기를 구입하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부대와 연락이 끊어져서 3년 동안 병어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회겸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반일 민족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지장회 선생은 노령에 갔다가 후룡강성 요하현에 돌아와 한의사를 했는데, 여전히 민족주의 사상을 고집했습니다. 1927년에 최용건이 요하에 왔을 때 지장회 선생을 찾아갔고 나중에는 그 분을 義父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인맥을 통해 요하유격대를 만들었습니다. 광복이 된 뒤에는 최용건이 지장회 선생을 북한으로 모셔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최용건이 당수이던 민주당 중앙위원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지회겸 교수님은 비록 민족주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영안에 있는 길림제 4중학교에 다니면서 맑스주의 사상에 접하고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공산당 ML파에 참가해 영안현에 속하는 제8구 구위서기를 담임했는데, 나중에 연변자치주 초대 주장이 되는 주덕해도 그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1930년 국제공산당의 지시로 만주지역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중국공산당에 참가할 때 상해에서 온 홍남표가 화요파만 입당시키는 것을 보고 파벌을 조작한다고 하면서 당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영안지방을

시찰하던 중 그의 출중한 중국어 능력에 탄복한 중공만주성위 위원회 소개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밀산현 당벽진 특별지부 서기로 파견되었다가 만주사변 직후에 주하중심현위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위의 조직부장이 체포되어 밀고하는 바람에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滿洲共産匪研究』에는 池活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3년 무렵에 출옥했지만 유격대를 찾지 못해 당적을 상실하고 연길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또 일경의 요시찰인물로 지적되어 세 번이나 투옥되었는데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했습니다. 광복이 된 다음에 강신태와 최용건의 소개로 노동민주동맹 부위원장을 맡았고, 강신태가 서기를 맡은 연변당부의 선전부장도 겸임했습니다. 그 후 용정에 있던 고급간부학교에서 진행된 정풍운동에서 과거의 행적이 문제가 되어 당적을 박탈당하고 연변대학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덕해의 노력으로, 내가 3학년일 때부터 한국 근대사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은 나에게 자기의 경력에 근거해 책에서 볼 수 없는 민족 운동사의 많은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하기 힘든 자료들도 제공했습니다. 그 분은 저의 한국사 연구에서 잊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지희겸 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그 때 한국사가 중국 학계에서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박창욱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연변 대학에서는 한국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사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 덧붙일 것은 지금 중국의 대학 가운데 한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한중 수교 이후에 개설된 것이고 조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성된 관습적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 생활을 시작한 1950년대는 냉전이 극에 달한 시기로 중국 학계에서는 맑스주의 이론으로 중국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세계사는 대개 소련의 대학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 가운데서 한국사 부분은 평양의 관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고 중국인 학

자들 가운데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연변대학 역사학부의 교수들은 그래도 민족 의식에 입각해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국 경내에 유적지가 있는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변대학은 중국 내에서 한국 역사 연구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지요. 연변대학 교수들의 꾸준한 연구로 점차 길림성과 기타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지금도 한국 역사와 한국 철학의 연구회는 여전히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 중심과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중견 학자들은 조선족 아니면 연변대학 출신입니다. 한국의 언어문자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병호 연변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을 당시 교수님들의 연구와 생활은 어떠했지요?

박창욱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에서는 1950년대 후기부터 정치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교수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반우파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우파 투쟁은 주로 당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지식 분자를 상대로 진행된 정치 운동인데 비록 문화대혁명처럼 육체적으로까지 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 우파로 지목된 사람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파로 지목되면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수들 사이에는 강의와 연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더 정신을 집중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운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역사 연구가 중국공산당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선족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면 민족 분열주의자로 지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에 참가한 조선족의 혁명 투쟁사 혹은 중국공산당 연변당사를 연구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민족 해방 운동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할 뻔 직접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학부 교수 가운데는 민족 해방 운동에 참가했던 몇 분이 계셨는데, 만약 이 분들이 한국 민족 운동사를 연구했다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겠지만 그 때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말하는 것조

차 꺼려하면서 모두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어려서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유리했고 또 잠재된 민족 의식에 의해 연구 영역을 선택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의 경력이 정치 운동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때 이미 중국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대학 시절부터 흥미가 있던 민족 해방 운동사를 계속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서 중국공산당 연변당사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민족 운동사를 연구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매우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운동 당사자들이 많이 생존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경비가 없어 찾아다니지 못했습니다. 혹 자비로는 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지 모르지만 그 때 대학 교수의 월급으로는 가정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달에 54 원씩을 받았는데, 부인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인이 위로는 노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두 아들과 조선으로 간 두 형님이 남긴 조카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월급에서 연구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유병호 기왕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사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나와 같은 해에 연변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했는데 서로 반은 달랐지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자유연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의 주선으로 선을 보고 정식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나보다 1년 먼저 졸업하고 연변 일보사에 기자로 취직했는데, 내가 졸업하자 우리는 곧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1년 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의 공동명의로 이불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친지들을 불러 식당에서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나는 새 옷을 장만하지 못해 친구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있는 신문사에서 단칸방을 빌려주어 살림을 차렸지만 집의 재산이라고는 벽에 쌓아놓은 책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학

교에서는 나를 상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에 연수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는 농촌학교에 교원이 부족하다면서 그 사람을 화룡현 두도구진 중학교로 전근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중학교 역사강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모와 두 아이, 그리고 조카들을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남자가 해야하는 모든 힘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때 7~8년 동안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역사와 민족 운동사 연구

유병호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학문이라는 것은 현실의 정치 동향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민족 운동사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중국에서 정치 운동의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연구가 허락되었습니까?

박창욱 1958년에 반우파 투쟁이 끝나자 대약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민족사 무위원회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소수 민족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북경대학, 그리고 길림대학에서 연변대학에 전문가를 파견해 역사학부 학생들을 조직하고는 조선족의 사회와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화동사범대학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조사가 끝나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해 조선족 역사 체계를 세우는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동북지방당사편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연변대학에서는 저를 저를 1년 동안 연구원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이 편찬위원회에서는 당내 극비 문건을 포함해 일제가 남긴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침식을 잊어가면서 자료를 탐독하고 자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에 카드만 한 트렁크가 되었는데, 이는 그 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나는 이 자료와 조선족 사회 역사 조사를 결합해 이미 편찬한 연변사를 다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1961년 연변주 정부에서

는 저와 고영일·허대진·한중광 등으로 조선족역사편찬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좌경 사상의 영향으로 편찬조 내에서는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조선족 역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민족주의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선족과 조선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민족주의자라고 상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연변대학 총장인던 임민호(ML과 출신)의 중재로 우리는 의견을 타협하고 1962년에 초고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중앙에서는 이것을 백피서(내부 출판물)로 출판했는데 중국 소수 민족사 가운데서 제일 우수한 연구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았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 연구를 시작할 때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이 바로 조선족 역사인데, 조선족 역사와 한국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욱 처음에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중국 조선족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한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을 보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아리랑을 단순히 중국 조선족의 것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죽은 민족 운동가는 조선족 역사에 넣고 광복 후에 귀국한 사람은 한국사에 포함시키자는 방침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신채호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 운동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러한 기준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기한 것이 조선족 역사의 二重性입니다. 즉 한국측에서 보면 한국사이고 조선족이 보면 조선족 역사라는 관점이지요. 따라서 조선족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중공 만주성위의 문헌에도 조선족의 이러한 이중성을 긍정하면서 조선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해방을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지로 조선족은 모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민족 자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조선족이란 명칭이

해방 이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조선족 혹은 조선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의 이러한 특성은 遷入 민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국에서 이미 근대적인 민족으로 형성된 다음에 타국에 이주한, 모국이 있는 민족에게서 특히 강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뿐만 아니라 기타 연구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 한국사의 일환으로 조선족 역사를 연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변대학에는 한국사를 직접 연구하는 시스템이 또 있었습니까?

박창욱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 아직 국공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지의 조선족 지식 분자를 모아 연변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 교수님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대신 매달 쌀 몇 말씩 받으면서 사명감으로 교단에 나섰는데, 설립할 때 조선어 학부와 역사학부를 설립한 것은 설립의 동기에 얼마나 강한 민족의식이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학부의 교수들은 특히 한국사의 강의에 많은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에서 연변대학의 한국사 연구를 장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들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돈화 육정산 발해 유적을 조사한 것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과 조사에 학생들도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생생한 역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지에서 수집한 발해와 고구려의 유물들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연변역사박물관에 이전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반우파 투쟁을 비롯한 정치운동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된 연구도 결국 문화대혁명으로 산산이 파괴되었지만 박진석, 김광수, 방학봉 교수님과 나를 포함한 제1대 연구자들의 연구 기초를 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먼저 조선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역사·철학·경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역사학부에는 선택 과목으로 한국사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한국사 석사 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설립되었고 연구지가 발행되었습니다. 나도 역사학부에 선택 과목으로 조선족 역사를 설치하고 1984년에는 민족연구소를 설립했습

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조선족 역사 석사 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변대학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문제연구소와 중국내의 조선족을 연구하는 민족연구소란 두 개의 연구 체계가 마련되었는데, 1995년에 두 개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선어학부에 이어 연변대학에서 두 번째로 박사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사를 연구하는 교수가 십여 명에 달하고 박사도 십여 명에 달하지만 역사학부에서 한국사와 조선족 역사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초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꼭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 『연변대학학보』에 제일 처음 발표하신 논문이 「일제의 조선족 농민에 대한 ‘자경농창장’ 정책 연구」인데, 당시 중국 상황에서 혁명 투쟁사가 아닌 연구는 매우 희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연구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이등 국민이라고 했고 심지어 일본의 앞잡이라고 욕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존재했는데, 항일연군을 이끌던 주보중 등의 간부들에게도 조금씩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영국의 역사학자 존스(F. C. Jones)라는 사람의 글이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일본의 만주국 통치를 긍정하면서 재만 조선인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식민회사가 조선족 소작농에게 대부금을 주어 일정한 기한 내에 본전과 이자를 상환하면 자작농으로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역사 사실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분석을 통해 보아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즉 표면상으로는 2등 국민이라고 한 조선족이 실지로 3등 국민에 지나지 않고 만주국의 지배 민족인 중국인이 곧 2등 국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병호 방금 중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사 연구에서도 조선족 연구자와 중국인 연구자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변대학 등에서 조선족 학자들이 한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데는 민족 의식이 작용을 했지만 중국인

학자들은 조선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문적 흥미가 생기면서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양소전 양통방 교수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연변대학과 조선족 학자들에게는 한국사가 영원한 연구 주제로 남겠지만 중국인 학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자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중화주의 사상과 대한족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선족 학자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처음부터 한국사의 범주에 넣고 연구한 반면에 중국인 학자들은 조공과 같은 특정 용어를 근거로 중국사에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중국 판도 안에 속한 지역의 모든 역사를 고대부터 중국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 교류의 연구에서도 조선족 학자들은 교류 즉 상호 영향을 강조하지만 중국인 학자들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족 학자들은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국제적 연대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반면에 중국인 학자들은 중국의 영도를 받은 국제 지대 정도로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문헌 고증에만 의한 잘못된 인식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역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약속 민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차이도 계속 존재하겠지만 끊임 없는 민족간 문화 교류를 통해 이러한 차이도 점차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병호 선생님께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짐작하는데, 선생께서도 박해를 받았는지요?

박창욱 사실 나는 문화대혁명 직전에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던 康生을 좌경 기회주의자라고 말한 것과 林彪가 개인의 역사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죄가 되어 반혁명 분자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연변주 주장인 주덕해의 개인사를 조사하는 팀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의 개인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홍위병들은 나를 주덕해의 민족 분열주의 추종자로 지목하고 여러 가지 죄명을 덮어 씌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족 역사의 머리말에 김일성을 언급한 것, 민생단 투쟁을 주도한 중

공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중국인)을 좌경 분자라고 한 것, 그리고 토지 개혁이 과격했다고 한 것이 주요 죄목이었습니다. 결국 화룡현으로 추방되어 노동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후에 홍위병에 의해 연변대학에 잡혀와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다시 화룡현으로 추방되었는데 다행히 장기간 교단에 선 경험이 있던 관계로 노동 개조는 하지 않고 여러 중학교를 전전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다가 1978년에 10년 만에 연변대학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유병호 문화대혁명으로 농촌에 추방당한 동안에 연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창욱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때 홍위병에게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장기간 수집한 자료들을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추방될 때 소장하고 있던 책을 폐지로 판 것이 차로 11대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추방되어 있던 동안에 연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당시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들이 일부 책을 감추어두었다가 제가 돌아온 후에 돌려주었습니다. 홍위병에게 몰수당한 노트는 연변대학에 복귀한 다음에 겨우 10책만 돌려 받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연구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과연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문화대혁명 후에 조선족의 이주사에서 시작해 민족 해방 운동사를 비롯한 각 방면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통해 중국 조선족 역사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석사 연구생으로 입학했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요녕성과 하북성 등지에 산재해 있는 박씨촌을 조사한 뒤 조선족의 이주 시기에 대해 처음으로 明末清初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 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는데, 그 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역사·문학·예술 등 분야에서 모두 조선족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조선족 역사의 기점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학계에서는 100년설, 고구려설, 元代설 등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대부터 조선인이 중국으로 이주는 많이

했지만, 지금의 조선족의 시조는 현재 호적상 조선족으로 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봄에 석사 연구생들을 데리고 요녕성과 하북성에 있는 박씨촌에 대한 사회 역사 조사를 진행해 그들이 ‘병자호란’ 당시 납치된 사람들로, 지금까지 강한 민족 의식을 보존하고 있고 호적에도 조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명말청초론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은 이미 한족으로 동화되었다고 하고 일부 정부 관원들은 또 그들이 아이 둘을 낳기 위해 조선족으로 바꾸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조선족으로 개정하기 전에 만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둘을 낳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사 과정에 중국과 같이 주체 민족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나라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 문화의 동화는 필연적인 추세이지만, 민족 의식의 동화는 제일 완고한 것으로 표면상의 동화가 된 다음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민족의 개념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병호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 가운데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역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간 것은 언제입니까?

박창욱 198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한 한민족독립운동사 국제 학술 회의에 참가한 것이 처음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로 한국전쟁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 서울에 간 적이 있지만 학자의 신분으로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진지한 태도와 풍부한 연구 성과에 감탄을 하면서도 냉전으로 인한 견해의 차이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문화 교류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병호 그 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한 학술 회의에서 선생님께서는 「간도국민회를 논함」이란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견해 차이가 반영되었는지요?

박창욱 민족 운동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연구자들이 1920년대의 독립 운동 가운데 임시정부와 남만에 초점을 맞추고 동만 지역의 민족 운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의 동만에서는 청산리 대첩만 중시하고 같은 시기에 왕청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를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를 통해 1910년대 민족 운동의 중심지는 동만 지역이고 최고봉은 청산리대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청산리 전쟁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두 개로 구분되는데 동부 전선에서의 청산리대첩도 만약 서부 전선에서 일본 토벌군 일부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족 운동사 연구에서 임시정부의 범 통만 고려해 동만을 경시하고 서부 전선을 언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면 어떻게 역사의 객관성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당시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또 「조선혁명군과 양세봉 을 비롯해 조선혁명군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집필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박창욱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는 남만의 조선혁명군과 북만의 한국독립군이 있었습니다. 한국독립군의 경우 그 참가자들이 광복 이후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독립군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훨씬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1936년까지 만주 지역에서 독립 투쟁을 견지한 조선혁명군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양세봉과 김일성의 인연 때문이라고 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양세봉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자들과 연대 투쟁을 벌인, 민족 운동을 국제적인 반일 투쟁으로 승화시킨 민족주의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혁명군에 대한 재조명은 단지 민족 운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 운동을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만주 지역의 민족 운동을 연구하면서 간혹 임시정부의 노선을 비판했는데 임시정부의 범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박창욱 3·1운동이 발발한 후에 한민족이 요구하고 있던 것은 국내외의 민중 운동을 총지휘할 지휘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직 정부를 설립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 임시정부의 작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휘가 국무총리를 맡은 다음에 임시정부가 추진한 무장

투쟁 노선은 청산리대첩을 낳았고 1944년에 결성된 통합정부만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법통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냉전적 사고 방식 때문에 임시정부를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일 빨치산 투쟁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항일 빨치산의 이야기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선생님께서 북한의 항일 무장 투쟁을 역사적으로 과장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내가 공산주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익을 포함해 김일성만큼 충을 들고 직접 싸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實事求是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사실에 어긋나는 허구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유병호 김일성을 비롯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한국 민족 운동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박창욱 당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은 해방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김일성 부대를 독립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도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연군은 반일 국제 연합군으로 한국사에서도 당연히 취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 항일 무장 투쟁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평양에도 다녀왔고 또 북한의 학자들과도 자주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박창욱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연군에 참가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조선혁명군을 창설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조선혁명군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국제공산당에서 그 때 조선혁명군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일성

이 영도한 항일연군 제2군 6사는 객관적 환경 때문에 조선혁명군을 설립하지 못하고 한인이 많은 곳에서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고 중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항일연군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국광복회는 순수 한인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의 부대가 장백현 지방으로 진출할 때 그곳의 천도교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을 단합하기 위해 설립한 반일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광복회는 민족 통일 전선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 항일연군 제1로군의 한인 지도자들이 직접 영도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민족 운동사뿐만 아니라 친일파의 죄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직접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박창욱 내가 민족 운동사를 연구하는 목적의 하나는 순국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으로 후대를 교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잡자면 선열들과 대조를 이루는 친일파들의 역사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주국은 친일파의 온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주국에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많은 친일파가 해방이 되자 청산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사상적 잔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다시 나타나서는 안될 ‘사대주의’ 근원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 연구와 한민족 공동체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연구를 시작한 이래 줄곧 한국사라고 총칭할 수 있는 조선족 역사와 민족 운동사에 주력해 오셨고 중국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중심에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역사학계에서 한국사 연구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창욱 우리에게 한국사는 모국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조선족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볼 때에는 단순한

외국사로 인정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외국사는 흔히 본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현실적 중요성에 의해 그 위치가 좌우됩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동방 각국을 다루면서 인도와 일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인도는 고대 문명국이고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역사학자는 절대 한국사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에 한국사는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지역성을 지닌 학문으로 되었지만 한중수교 이후 많은 대학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는 아직도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이려면 한국의 국력이 계속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학술 교류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20여 년 동안에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했지만 저서는 오히려 몇 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창욱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사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조선족 역사 연구는 아직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경비를 이미 발표된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나는 조선족 역사의 체계를 세우고 주요 문제를 구명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선족백년사화』, 『중국조선족역사발자취』, 『조선족교육사』 등 수십 책의 편찬에 역사 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교열을 담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조선족역사발자취』는 근 10년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조선족 역사 연구는 단순한 학문 문제를 넘어 민족적인 사업이고, 따라서 나 한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앞세우는 사람은 진정한 민족 사학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의 민족 역사 의식을 계발하고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려면 앞으로도 학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역사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개혁개방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연구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고 자료를 제공

하고 연구를 지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연구자들은 교수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학자들 사이에도 경쟁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력의 경쟁이지 결코 자료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는 한국의 많은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 내의 항일 독립 운동의 자료와 사적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연구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연구 성과와 한국의 자료를 받는 것은 학문 교류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학문 연구에는 국적과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교수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젊은 학자들과도 광범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서 어떤 힌트를 받고 새로운 연구를 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후학이 나타나는 것이 학자의 제일 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학문적으로 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논쟁이 없이 학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유병호 한중 수교 이후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를 위해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욱 연변대학을 비롯한 중국 내의 한국학 연구소들은 거의 모두 한국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만 후원 방법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연구 과제를 주고 그에 따른 연구 경비를 지원하는 ‘주문식’ 방식을 취했는데, 연구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능동적 연구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구 경비가 중단되면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IMF 이후에 한국의

후원 경비 절감 및 중단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학 연구 기구를 축소 혹은 해체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한국학의 연구 기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심의 위치에 있는 연구 기관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연구의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선생님의 연세가 벌써 한국 나이로는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후학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욱 먼저 민족 운동사에서 1920년대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조선족통사』와 그에 기초한 자료집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집필중에 있는 조선족 통사에는 중국 경내에서 진행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포함한 민족 해방 운동의 전모를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해외 한민족사의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에도 일정한 공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중국의 당안관 자료를 포함해 일제의 정보 자료 등 중국 조선족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집대성해 만들려고 합니다. 비록 연구 기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생을 이에 바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조선족에 대한 애정으로 역사를 연구해 오셨고 또 이를 통해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21 세기에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한민족 문화 공동체입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미국 등 세계 각국에 있는 한민족은 민족 문화 공동체를 건립한 여건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소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민족적 이질성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민족 공동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민족 개념은 문화의 개념입니다.

남북한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한인들은 아직 이념과 국적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 조선족

과 러시아의 고려인, 그리고 제일 동포의 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한국을 세계화하는 외교 사절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들의 외국 국적을 계속 인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문화적 투자를 늘려 기타 민족에 동화하는 것을 막고 한민족 문화권에 남아 있게 해야 합니다. 민족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역사에 대한 애정과 민속 풍습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역사는 민족 문화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경제만 논하고 있는데 경제 교류는 문화 교류를 통해 뒷받침되어 합니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의 형성은 한국과 상대국과의 경제 교류에 크게 유리할 것입니다.

유병호 선생님의 일생은 어찌 보면 조선족이 겪은 파란곡절의 70여 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창욱 숙명론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일생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비록 일본의 민족 차별도 받아 보았고 전쟁의 생사고비도 넘겨보았을 뿐만 아니라 추방되어 강제 노동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연구에서의 넓은 시각과 다양성을 키워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족 역사 즉 한국사 연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데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훌륭한 내조가 있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사회 일군으로 장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은 여생이 얼마 안되어 계획한 연구를 완성할지 근심이 되는 것뿐입니다.

유병호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